



## 한라산 백록담 토사 유실 수위 하루 10.5cm 낮아져

‘한라산연구소’ 진승환·고정근 위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백록담(사지)의 담수 수위 변화와 강우량을 조사해 ‘한라산 정상 일대 강우량에 따른 백록담 담수 수위 변화’란 연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분화구 경사면의 토사가 백록담 바닥으로 유실되고, 바닥에 쌓인 토사층은 투수 속도가 빨라 비가 토양에 닿자마자 팽창으로 스며들어 백록담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92년 ‘백록담 담수 적정량 보존’ 용역에서 보고된 한라산 정상 북서측벽의 하부와 분화구 중심부에 발달된 파쇄대 기반암의 균열 현상 때문에 담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이들은 비가 오지 않은 기간에는 백록담 담수의 수위가 계절에 따라 하루 평균 4.3~6.4cm 낮아졌으며, 하루동안 최고로 수위가 낮아진 때는 10.5cm였다고 밝혔다. 1년 중 백록담이 바닥을 드러내는 고갈 일수는 37일이며, 백록담의 담수 가능 면적은 6천61평(2만여㎡)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지리산 반달가슴곰들 겨울잠 깨내고 봄 활동

지난 1월 중순 동면에서 들었던 지리산 반달가슴곰들이 겨울잠 깨내고 봄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모니터링이 가능한 10마리 중 8마리가 동면에서 깨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곰들도 이번 주 중 동면에서 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4월17일~19일)에 동면에서 깨 곰들은 초기 가장 동면골을 드나들며 일광욕을 하거나 나무의 새순·봄꽃·도토리 등을 먹으며 생체 리듬을 회복해 가면서 활동량을 늘리고 있다. 공단측은 곰들의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벌통 주변 등에 설치, 피해 예방효과가 있었던 전기 펜스를 11개에서 59개로 확대하고 울무 등 불법 염구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 조선대·나주대 ‘관선 이사’ 끝나나

## 교육부 “사유 해소… 정이사 체제로 구체적 계획 없어 연내 전환은 불투명

교육인적자원부가 각종 학내비리를 이유로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된 조선대와 나주대에 대해 17일 파견 사유가 해소됐으며 정이사 체제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 운영돼 왔던 두 대학이 정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정상

화를 되찾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임시이사가 선임돼 있는 조선대와 나주대 등 전국 19개 대학 가운데 파견 사유가 해소된 10곳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0개 대학은 조선대, 대구대, 영남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4년제 대학 7곳과 나주대, 김포대, 서일대 등 전문대 3곳이다. 조선대의 경우 지난 1988년 2월 박철웅 재단이사장의 학교 파행 운영 및 교비횡령 등 이른바 학내비리에 대한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나주대는 김광아 재단이사장이 지난 1995년 1월 학교설립 당시 실험실습기 자체 구비 조건 등을 허위보고하고 이후 교비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지

난 2004년 2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교육부는 파견 사유가 해소된 나주대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이사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합의점이 도출되면 상반기 중 정이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대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제출받은 뒤 연말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선대와 나주대가 교육부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조선대의 경우 지난 13일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재단 이사장과 총장에게 보고한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학원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산규모 1조원, 연간 예산 3천500억원에 달하는 ‘거대공룡’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기업이나 독자가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재산 출연한 자 중 구성원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정이사를 뽑는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나주대는 지난 2월 23일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해임으로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어 정이사 체제 전환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일부 이사와 교수들이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이사 체제 전환 방침을 밝혔다고 반발하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전남대 총동창회 “총장실 점거농성 중단하라”

전남대 총동창회(회장 조국현) 임원진 40여명은 17일 전남대 총장실을 방문, 지난 14일부터 등록금 인상분 환불 등을 주장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총학생회 관계자에게 “학교와 16만 동문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점거 농성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상의 회장선거 법정 공방

지난달 치러진 광주 상공회의소 제 19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 대리투표 논란이 법정에서도 재연됐다. 17일 오후 광주지법 제 9 민사부(부장판사 김재영) 심리로 열린 ‘광주상의 마형렬 회장과 3명의 부회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신청인인 금호종합금융 측과 피신청인인 마 회장 측 변호인단은 40여 분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리에서는 ▲가짜 임직원에 의한 대리투표 여부 ▲투표권 부여 범위 ▲선거의 공정성 여부 등이 주요 쟁

점으로 거론됐다. 금호 측 변호인인 이정희 변호사는 “위임 투표자 446명 중 대리투표 의혹이 짙은 156명을 상대로 노동청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미가입자로 나타났다”며 “공정하지 않은 선거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 회장 측 변호인인 양태열 변호사는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해당하지 않는 등 고용보험을 납부 여부만으로 ‘비(非) 임직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

## 금호종합-馬회장측 대리투표 의혹 논란

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금호 측이 “휴·폐업 등으로 상공인이 아닌 업체가 어떻게 투표인단에 포함될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마 회장은 “선거규정 어디에도 휴·폐업 업체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으며, 회원이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불법 대리투표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금호 측은 “마 회장과 업무상 친분이 두터운 일부 회사에서 4~6명 단위로 집단투표한 후 투표권이 부여된 회

사로 위장 입사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허위 입사와 고용보험 위장 가입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 회장 측은 “신청인(금호) 측이 말한 불법 대리투표자 가운데 3월1일 이후 최근 회사자들도 일부 있었다”며 금호 측의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이형희 회장과 강행욱 총무이사가 금호 측 변호인으로, 전직 판사인 양태열 변호사와 양시복 변호사가 마 회장 측 변호인으로 각각 나서 논쟁을 끌었다. 3차 심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3차 심리 후 심문을 종결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6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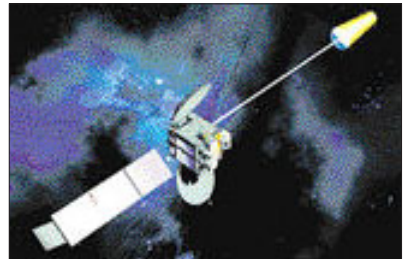


**연예24동원침**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지  
문의 (062)366-4220

## 기상위성 고장-영상 자료 제공 중단

○기상청은 17일 0시57분부터 일본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MTSAT-1R’(사진)에 장애가 발생, 매 30분마다 받는 영상 등 위성관측 자료수신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MTSAT-1R 위성은 지난해 2월26일 발사돼 동경 140도에서 관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장애 현상은 위성 자체의 이상에 따른 것이라고.



○기상청은 MTSAT-1R 외에 매 시간 유럽의 정지궤도 위성인 Meteosat-5호 위성 자료를, 3~4시간마다 미국의 극궤도 위성인 NOAA 위성 자료를 각각 수신해 기상분석에 활용.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당선확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선거권명부, 원고작성, 유세지원, TV광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문의 02-626-6523-4  
017-603-6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우개발 행정관리사무소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061-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삼우상사

061-278-4262  
232-6262  
624-6262